

<안산병원 4/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

▲ 병원 안전관리자 선임 건 ▲ 직원 건강검진 시 암지표 검사 추가 등

병원 안전 및 직원 건강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안산병원 2018년 4-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가 오후 3시, 13층 대회의실에서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노재욱 지부장, 정혜란 수석부지부장 이하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사측은 최병민 병원장, 권병창 경영관리실장 및 위원들이 참석했다. 노사 대표 인사에서 최병민 병원장은 “산안위에서 안전들을 잘 논의해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노재욱 지부장은 “안산병원 인증 준비로 고생 많으셨다. 원장님께서 인증 혁신TF 위원으로 참여하셨다고 들었다.”고 말하며 인증 개선 사항에 대해 질의했

으며 이에 최병민 병원장은 “이대 목동 병원 사건과 관련하여 감염 관련 사항이 강화되었고, 간호사들이 역지로 준비하지 않고 외우기 식의 인증준비를 없애며 기본을 철저히 하는 부분으로 개선되었다.”고 답했다. 본 회의에서는 노동조합이 병원에 요청한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2-4분기 산안위에서 논의되었던 안전에 대한 점검 및 이행여부, 4-4분기 안전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은 산안위 요청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및 안전에 대한 결과이다.

안전	노동조합 질의	병원 답변
노동조합 요청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건】 ① 하반기 교육은 내년 1월 실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올해 끝내지 않고 내년에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① 회계연도가 2월이라 2월 말 전까지 시행 할 예정이다.
	【산업재해예방의 수립에 관한 건】 ① 직무상 요양 및 산업재해가 10건인데 전체 인원인가? ② 낙상사고 건은 부결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달라 ③ 영양팀 화상사고가 있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이 있는가? ④ 10건 이외에 다른 공상 처리 건이 더 있는가? ⑤ 그런 자료도 별도로 첨부 해 달라	① 그렇다. ② 철제부속물 작업 중 낙상했는데 바로 진료를 보지 않고 9개월 지난 시점에서 신청해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하여 부결되었다. ③ 관리감독자가 1명이다 보니 보호 장구 착용에 대한 체크하기가 힘들다. 이번 건은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④ 있다. ⑤ 알겠다.
	【2018년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관한 건】 ① 약제팀 분진 측정했는데 노출기준이 미설정으로 되어 있다. 의미가 무엇인가?	① 호흡기 분진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기준 자체가 없다.

	② 측정 자료를 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나?	② 일반적인 분진 기준으로만 본다.
지난 산안위 이행점검 건	<p>【간편복 병동 확대에 관한 건】</p> <p>① 진행 상황을 말해달라.</p> <p>【간편화 부서 확대에 관한 건】</p> <p>① 의기직 추가확대에 대한 진행상황은?</p> <p>② 간편화가 볼이 너무 좁고 딱딱하다고 하더라. 지급은 했는데 신지 않으면 돈만 낭비하는 꼴이니 질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해주셨으면 좋겠다.</p> <p>③ 수술실 일반업무직, PA는 지급이 왜 안 되는가?</p>	<p>① 간호부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요구도 조사를 먼저 2월쯤에 하고, 그 결과를 모아서 최종결정은 의료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p> <p>① 간편화에 대해 피복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다. 간호부는 규정이 있어서 지급을 하는데, 의료기술직은 규정이 없다. 하지만 요구도는 있다. 단체협약에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p> <p>② 샘플테스트 하고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편한 것을 떠나 안전과 관련되어 조금 불편해진 게 아닌가 싶다.</p> <p>③ 수술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어서 수술실 간호화랑 크로스 중에 선택한 것이다. 본인이 원하면 가능하다.</p>
5) 근로자 유해 및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건	<p>【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건】</p> <p>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근로자 1,000명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안산병원도 2명을 선임해야 한다. 요즘은 시설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안전관리자 뿐 아니라 소방 등 경영의 입장에서 안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p> <p>② 시설팀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실 통합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서원들의 동의와 의견이 빠진 채 무리하게 진행하게 되어 시설팀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부서원들이 증원된 것에 비해 협소하고 불편하다. 병원이 이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p>	<p>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볼 수 없으나 노동부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 3개 병원에서 공통적으로 진행해야 한다.</p> <p>② 전적으로 동감한다. 갑자기 진행하다보니 업무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 의심하고 갈등이 생겼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업무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p>
6)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건	<p>【신규직원 건강검진 개선에 관한 건】</p> <p>① 신규직원 입사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받는데 이 때 건강검진 비용을 사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타 병원이나 모든 기업들은 보통 신규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을 사업주 측에서 내는데 이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p> <p>【직원 건강검진 시 암 지표검사 추가에 관한 건】</p> <p>① 병원 노동자들은 야간노동 및 환자스트레스로 인해 암 발병률이 더욱 높다고 한다. 직원 건강검진 시 피검사를 하는데 이 때 암지표 검사를 추가하여 암에 대한 조기 증상 발견등으로 직원 건강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p> <p>② 건강포인트와는 다른 맥락이다. 일반 건강검진 채혈 시 한 두 가지 검사를 추가해서 척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검진은 직원들 스스로 잘 하지 않게 된다. 매년이 아니라 한다면 주기적으로 하면 될 것 같다.</p>	<p>① 우리병원에서는 40% 직원할인이 가능한데 타 병원에서 받아 온 것을 대신 부담하기에는 애매하다. 병원차원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 의료원에서 교섭으로 해결하면 좋겠다.</p> <p>① 암 표지 검사로 암을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건강검진 포인트 제도를 통해 검진을 받으면 된다.</p> <p>② 지표검사가 얼마나 유효한 지 알아보고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확인해보겠다.</p>



인산병원 별관에 휴식과 즐거움이 있다!!

오픈 예정일은 추후 병원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인산병원 별관 지하 1층에는 직원들을 위한 휴게실, 모성보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잠깐의 휴식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와서 쉬었다가세요~ 또한 산안위에서 안건으로 논의했던 남자 간호사 탈의실도 마련되어 사용중에 있습니다.